



문화다양성 마주하기

2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소개

4

문화다양성 마주하기

옷가족성이주민
 계층문화다양성
 너와나우리세대차이새터민
 장애인종언어나이
 도시와농촌외모종교미혼모
 소수자지역난민중도입국청소년취미
 생물다양성피부색
 전통공동체

“문화다양성은 차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모두의 얼굴 생김이 다르고 생각과 표현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주위에는 외모, 종교, 언어, 인종, 성, 취향, 나이, 계층, 가족, 지역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함은 나 자신에게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있고,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존재합니다.

‘문화다양성’은 이렇게 모든 인간과 집단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적 차이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부터 출발합니다.

“문화다양성은 차이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자유가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받을 문화적 권리가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와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배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자신이 선택한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성의 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의 꿈입니다.



“문화다양성은 관계 맺음입니다.”

문화다양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의 시작은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입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다.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다. 나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서는 “소수에 의한 세계화와 획일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자”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양한 문화가 표현, 전달되고 예술적 창작, 생산, 향유 방식이 다원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주간 : 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부터 일주일 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문화다양성 지도	만나다	즐거다	이해하다	느끼다	잇다
배려	보살피는 만남	함께 느끼는 재미	이해를 돕는 배려	타인의 감각에 대한 배려	참여방법에 대한 배려
소통	이야기가 있는 만남	소통하는 즐거움	이해를 통한 소통	느낌의 공유	과정에서의 상호 배움
공감	깊이 있는 만남	즐거워야 열리는 마음	이해를 통한 공감	감각을 통한 공감	협력의 즐거움
존중	환대하는 만남	즐거움의 가치	상호이해의 가치	감각의 가치	협력의 가치
수용	다양한 주체의 만남	경계를 넘어 다가감	타자의 마음읽기	편견으로부터 거리두기	나 중심에서 다함께로
참여	잠재된 창의성 발견	익숙한 것 낮설게 하기	관점의 전환	몸 활동을 통한 성찰	모두를 위한 실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문화는 다양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도 다양합니다. 문화다양성을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치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하고 표현하는 모든 문화적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느낌, 언어, 몸짓 드러내기가 우선시 될 때, 학습자는 배우의 주체가 됩니다. 배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다양성과 잠재된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차시별 주제와 연계된 활동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하고, 변형하고, 비틀어 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몸 활동을 통한 새로운 발견을 필요로 합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는 공자의 말처럼, 몸 활동 중심의 경험을 통해 타자의 마음 읽기와 차이를 상호 존중하는 배움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뭔가 낯선 경험을 했을 때 몸은 새로운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은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 낯설게 하기를 통해 감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학, 미술, 음악, 다큐 등 다양한 장르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내재된 창의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낯설게 하기는 너와 나를 나누고,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관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의 시간은 감수성을 자극하고,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이웃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공감과 소통활동을 하면서 나, 친구, 이웃, 사회의 소수자, 생태환경까지 관심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중심’에서 ‘다 함께’로 관심을 확대하고, 서로가 존중하며 여럿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천내용을 스스로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차시	역량	내용	쪽
1	다양성	차이가 이해를 만났을 때	7
2	공감과 소통	네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너	16
3	존중	너의 마음을 알아	23
4	수용	당연한 것 낯설게 하기	30
5	협력	너와 나, 우리의 이어짐	37

🌻 1차시. 차이가 이해를 만났을 때

_날개달기 “알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선택 1. 친구들에게 불리고 싶은 별명 / 나의 외모 특징

선택 2.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 내가 되고 싶은 것 / 내가 하고 싶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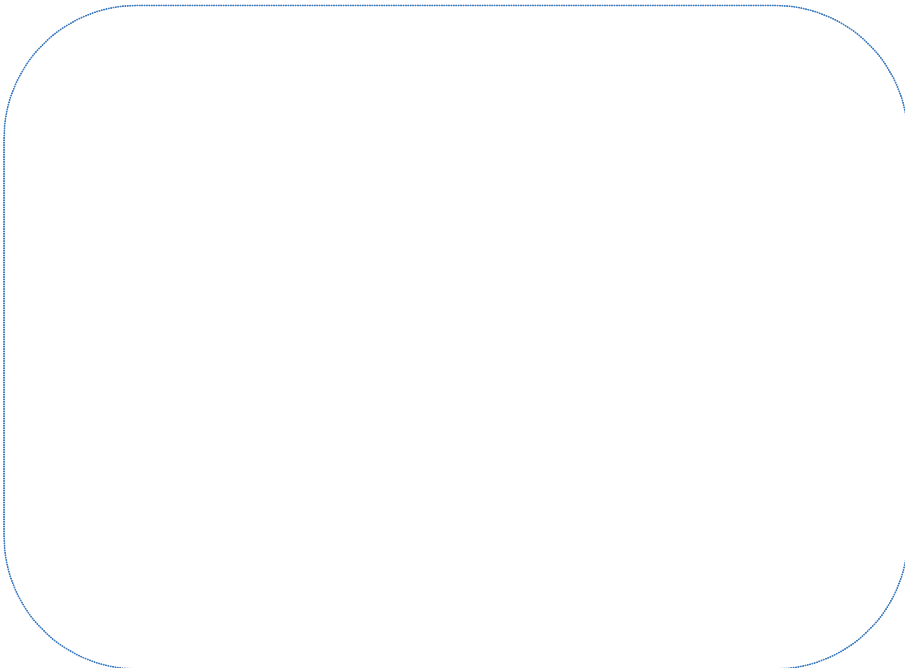
선택 3. 우리 반에서 내가 좋아하는 / 칭찬하고 싶은 / 친구 이름과 그 이유

+ 친구에게 질문 1가지

나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밑거름입니다.

_날개숫기 1. “말로만 설명하는 그림 그리기”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과 말로만 듣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그림이 왜 다를까요?



_읽을거리 《다른 일곱, 같은 일곱》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날마다 아이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할머니는 홀로 외롭게 밤을 보내야 했어요.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으면.....’

할머니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인지 할머니를 찾아오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밤이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 길겠구나!”

할머니는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천둥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툭툭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밤에 누구지?’

할머니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머리를 가웃거리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참새를 발견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 비를 만났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참새를 감싸 안고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쿵쿵쿵!!!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염소가 있었어요.

“이웃마을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났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염소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당당당!! 이번에는 암탉이었어요.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비를 만났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암탉도 들어오게 했어요.

텅텅텅!!! “산책하러 나왔다가 비를 만났어요.”

똑똑똑!!! “고양이를 따라오다가 비를 만났어요.”

똑똑똑!!! “춤을 추고 있다가 비를 만났어요.”

딱딱딱!!! “해가 진 줄도 모르고 자다가 비를 만났어요.”

고양이랑 강아지랑 암소랑 당나귀가 차례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걸 어찌죠? 집이 짝 차 버렸네요. 동물들이 움직일 때 마다 접시며 유리컵들이 깨졌어요. 게다가 동물들이 진흙이랑 낙엽들을 묻혀 와서 집 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동물들은 할머니한테 미안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하루쯤 불편한 건 괜찮아. 오늘 밤은 편히 쉬었다가 가렴.”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동실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염소랑 암탉이 얼룩얼룩한 바닥을 닦고 참새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염소랑 당나귀는 나뭇잎을 쓸어내고 있었지요. 고양이랑 강아지는 부엌에서 고소한 수프를 만들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지요. 남은 동물들도 서로 앞 다투어 일했어요.

“저는 집안에 있는 생쥐를 잡을 수 있어요.” 고양이가 말했어요.

“저는 도둑을 잡고 할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어요.” 강아지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저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할머니를 이웃집까지 태워드릴게요.” 당나귀가 말했어요.

“저는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꼬리로 벌레를 쫓아드릴게요.” 염소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한 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안타깝지만 다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누가 남을지 정해다오.”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동물들이 둘러앉았어요.

“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어야 해.”

암탉이 말하자 다른 동물들도 서로 자기가 남아야 한다고 했어요.

“모두 함께 지낼 방법은 없을까?”

“집이 좁아서 자주 다투게 될 텐데...”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동물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나귀는 수레로 돌을 나르고 암탉은 물과 흙을 섞어 벽에 발랐어요. 강아지는 나무로 대문을 만들고 고양이와 참새는 페인트칠을 했지요. 암소와 염소는 지붕을 만들었어요. 이웃집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진 집이구나. 이 정도면 모두 함께 지낼 수 있겠는걸”

동물들은 아주아주 기뻐어요. 할머니도 이제 외롭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 동물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너는 조금만 먹어서 좋아” 암소가 말하자 참새가 대꾸했어요.

“너는 힘이 세서 좋아.”

“아침마다 네가 일찍 깨워줘서 좋아.” 염소가 말하자 암탉이 대꾸했어요.

“아침마다 네가 준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넌 빠다귀를 좋아해서 좋아.” 고양이가 말하자 강아지가 대꾸했어요.

“넌 생선을 좋아해서 좋아.”

“우리들이 모두 한 집에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아.”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외쳤습니다.

작가 박유나, 을파소

_내가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이란?

_날개짓기 2. <차이가 이해를 만났을 때> 동영상보기

영상을 본 소감, 느낌을 나누어 보세요.

과학자들은 대체로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단지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데 동의한다.

‘현재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종이 비가역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올 것이다. 지금의 속도라면 우리는 세기말까지 지구상 동식물 종의 반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유전공학으로 새로운 유기체를 어떻게든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각각의 종은 인류가 복제할 수 없는 진화의 걸작이다. 종의 대규모 감소는 세계 환경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류의 미래에 엄청나게 유용할 살아있는 유전 정보 도서관들을 잃게 될 것이다.

생물학자 윌슨(E.O. Wilson)

날개짓. 비인간 존재되어 보기



후쿠시마 파란개구리



상괭이



닭



가리왕산나무



알바트로스 새



, 공기, 물, 바람처럼 크고 작은 다양한 생물들도 생태계를 이루며 우리 삶을 지속가능하게 해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물들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비인간 존재가 되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장의 그림이 있어요. 왼쪽에는 건강한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상처 입은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른쪽 사진 아래 말 주머니에 여러분이 비인간 존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말을 걸듯이 써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빗대어서 모든 일에 엮나가고 말을 안 들을 때 ‘꼭 청개구리 같다’는 표현을 하곤 하지. 우린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위해 주변 환경에 맞게 몸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봄의 절기인 경칩이 되면 모든 생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전령의 역할을 하지.



내가 사는 가리왕산은 희귀나무가 많고 500년 이상 된 나무가 많아서 산의 등급을 문화재로 본다면 국보 1호 감이야. 가리왕산의 나무들은 여름철 장마에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흙을 보호하고, 수많은 희귀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처가 되기도 하지.



안녕! 나는 토종 돌고래 '상괘이'라고 해. 나는 바다에 살지만 가끔 한강에도 놀러가곤 하지. 짱구같이 생긴 머리와 웃는 얼굴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나를 인어라고도 불렀어.



나는 땅 위에 있을 때는 큰 날개와 물갈퀴로 부자연스럽게 걷는다고 '바보새'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3m가 넘는 날개로 하늘을 누비는 모습은 정말 멋진 새야.. 하늘의 조상이 보낸 새라고 해서 '신천옹'이라고도 하지.



나는 태어난 지 6개월 정도가 되면 알을 낳을 수가 있어. 1년에 100~220개 정도의 알을 낳지. 내가 들판에서 자유롭게 다니며 풀을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달걀과 고기를 줄 수 있어.

더불어 날개짓

오늘 진행한 여러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왜 다양성이 능력을 이기는가?

"너무 유사한 집단은 새로운 정보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 동질적인 집단은 구성원들이 잘하는 일에는 뛰어났지만, 대안을 탐색하는 능력은 점차 떨어지게 된다. 그런 그룹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반면 다른 것을 탐색하는 데는 충분히 시간을 쏟지 않는다. 비록 경험이 부족하고 덜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 구성원을 조직에 포함시키면 조직이 더 현명해질 수 있다." 각주1)

제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s)』

"최고의 문제 해결자들에게는 비슷한 성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나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작위로 모아놓았을 때 문제 해결사 집단은 다양한 성향을 띠게 된다. 이런 다양성은 그들을 집단적으로 더 뛰어나게 만들어준다."

스콧 페이지(Scott Page), 『차이(The Difference)』

동물 그리기

“첫째,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넘어가는 부분들을 깨알같이 짚어 보게끔 해준다. 사슴의 자세를 감상한다고 해서 몸통 대비 머리의 비율이나 뒷다리의 모양까지 정확하게 인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은 시각의 건성을 훌륭하게 보완해준다. 둘째, 채집이나 포획 등의 침해적 행위에 대한 멋진 대안이다. ... 셋째, 그림은 이미 있는 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도감에 나온 예쁜 세밀화는 야외에서 만난 새의 아름다움을 배가시켜준다. 사진을 보고 기대했다가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 넷째, 그림은 동물의 행동과 생태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문이다. 동물을 그리려면 반드시 어떤 자세와 장면을 정해야 하고 또 배경을 채워 넣어야 한다. 기린은 목을 길게 뻗는 자세가 가장 어울리지. 아, 그렇다면 잎사귀를 따 먹느라 그러는 거겠지? 가만 있자, 그러면 그 정도로 높은 나무가 요 옆에 있어야겠네. 동물 행동학과 생태학이 이보다 더 잘 녹아든 매체는 없다. 다섯째, 사진은 현장을 포착하려 하다가 동물을 방해할 수 있지만 그림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릴 수 있다. 장비 등, 비용의 차이도 엄청나다.”

참고문헌. 김산하. 《비숲》

🌻 2차시.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너

_날개달기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너”

길가에 핀 꽃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 본 적이 있나요?
 하나같이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고것들이 신기하게도 예쁩니다.
 옆 친구의 얼굴을, 마음새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보이는지 나의 느낌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친구는 나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너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보는 나와 친구가 보는 나를 살짝 포개어서 위에 붙여 보세요.

몸 활동을 통한 소통, 타인의 마음읽기

"휴대전화를 통해 말을 하는 것도 소통이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소통의 방식이다. 현대의 기술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느냐는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다. 제대로 소통하려면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철학자 겸 작가 알랭 드 보통 [Heart & Communication 38호]

_날개짓기 “눈 마주보며 소통하기”, “외면하며 소통하기”

짝공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와 외면할 때, 몸의 반응이 각각 어땠나요?

내가 짝공의 이야기에 공감할 때 나는 어떤 몸짓을 했나요?

_날개짓 “침묵 속에 퍼즐 맞추기”

우리 모둠이 퍼즐 맞추기에 성공한 / 실패한 이유를 써 보세요.

_더불어 날개짓

공감이란?

_읽을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
감독 이길보라

때때로 저희 엄마는 그림책을 읽어주셨어요. 그 모습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동화를 읽어 주는 엄마는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셨죠. 저희 엄마는 청각장애인이지거든요. 그림보다 훨씬 생생한 표정으로 호랑이와 사자를 연기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제게 수화를 가르치셨고 저는 손으로 웅알이를 했어요. 저는 코다거든요. 코다가 뭐냐고요? 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줄임말로 청각장애인 부모 아래 자란 비장애인 자녀를 말해요. 부모님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지만 저는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달랐어요.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제 손에 500원을 쥐어주기도 했고 착한 딸이 되어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죠.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저도 모르게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어요. 한번은 좋아하던 남자애랑 건다가 엄마를 만났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주 작은 수화로 '그냥 가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매우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 마디 하셨어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내 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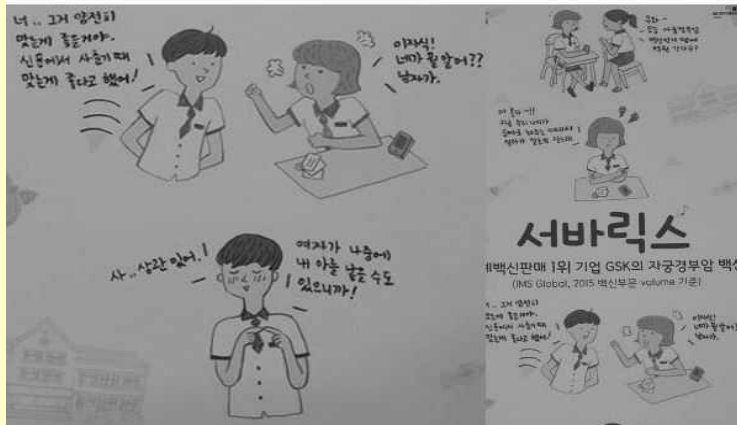
화가 나 등 돌린 어머니에게 저는 울며 말했어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사회가 밉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요. 사실 저 스스로한테 화가 가장 많이 났어요.

“입이 아니라 손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뭐가 부끄러워? 나는 농문화가 자랑스러워.”

그런 저에게 엄마는 농문화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애에 대해 엄마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코다'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농문화와 청문화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었어요. 제가 '코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쉽게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코다 프라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세상에 내놓았어요. 제목은 '반짝이는 박수소리'예요. 청인들을 청각장애인의 세계에 초대하고 환대한다는 의미죠. 영화를 통해 손과 얼굴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몰랐던 사람들이 놀려와 이 아름다운 움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입술 대신 손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장애에 대한 모든 편견을 없앨 순 없겠지만 '작은 균열'이라도 내고 싶어요.

»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 그거 암전히 맞는 게 좋을 거야. 신문에서 사춘기 때 맞는 게 좋다고 했어."
 "이 자식, 네가 뭘 알아? 남자가~"
 "사..상관 없어. 여자가 나중에 내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 대화가 어떤가요?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 광고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될 거라서가 아니라,

내 몸을 온전히 긍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권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마지막 편지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엔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 나의 권리 카드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낫설다고요? 그동안 여러분은 말 잘 듣는 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였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어떤 권리를 왜 찾고 싶은가요?

법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	편안하게 쉴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	진실을 밝힐 권리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
유해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고유한 생명권을 가질 권리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대중매체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인격, 재능을 계발시킬 권리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알릴 권리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모임과 단체를 만들 권리	국적 및 가족유대를 보호받을 권리	의식주를 누릴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난민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	문화, 종교, 언어를 선택할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중에서

5월 21일은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05. 10. 20)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간직되
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으며,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
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변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UN인권선언문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건 신탁통치지역이건 비자치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건,
그 나라나 영토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 3차시. 너의 마음을 알아

_읽을거리 《키아바의 미소》(칼 노락)

키아바는 이누이트족 일원으로 낚시를 매우 좋아합니다. 낚시를 하러 가는 키아바에게 아빠는 '오늘은 네 새끼손가락보다 굵은 물고기를 잡으라.'고 놀리듯이 말합니다. 키아바는 좋은 낚시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얼음을 깨고 낚시줄을 드리웠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실망할 즈음, 갑자기 줄이 팽팽해집니다. 열심히 줄을 당기자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키아바는 우쭐해졌지만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가 자기를 보고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키아바는 차마 미소를 짓는 물고기를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물고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아빠의 놀림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짓는 물고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큰 곰 한 마리가 나타나 키아바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아빠는 겁을 주어 곰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무섭게 소리를 지를수록 곰도 점점 더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키아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키아바는 곰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은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이, 더구나 화가 나 있는 곰에게 미소를 짓다니! 곰은 어찌 해야 할지 몰라 하다가 머리를 긁적이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아빠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키아바는 좋은 낚시꾼은 아니지만 마술사라고 말했습니다. 키아바는 여러 사람의 칭찬에 우쭐했지만 곧 잊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먼 곳에서 온 사냥꾼이 두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음집을 두껍게 쌓느라 정신이 없을 때, 키아바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 폭풍을 만나러 갔습니다. 불어오는 폭풍을 본 키아바는 무서워서 몸을 움츠렸지만, 곧 두 발로 딱 버티고 서서 폭풍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은 그 어이없는 광경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너 같은 어린애의 미소가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폭풍이 호통을 쳤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 볼 수 있잖아요?" 키아바의 대답에 폭풍은 어이가 없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느라고 바람을 불게 하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키아바는 마을로 돌아가 부드러운 바람소리를 들으며 아주 편안하게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_날개달기 1. "선물상자"

선물 상자 3개가 있어요. 어떤 상자를 왜 선택했나요?

_날개달기 2. "조류오 동영상 보기"

'조류오'가 되기 전과 '조류오'가 되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랐나요?
사람들의 반응은 왜 달랐을까요?



_날개짓기 “등 뒤의 소수자”

주변에 있는 소수자를 찾아보세요.

내가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_날개짓 “인형극 놀이”

조종자와 인형의 몸짓은 각각 어떻게 달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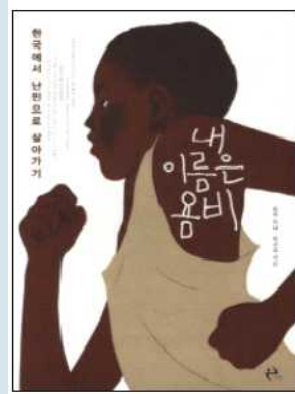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조종자와 인형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_더불어 날개짓

오늘 진행한 여러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_우리 안의 난민이야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난민신분으로 온 토나 욀비 씨예요. 욀비 씨가 말하기를 한국사회는 이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요. 어떤 것이 다문화화를 위한 준비일까요?

“시리아 난민들을 비롯한 난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대한민국에 올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들은 투표권을 제외하고 의무와 권리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난민센터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약과 차별이 뒤따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난민도 인권을 가진 인간입니다. 난민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콩고 속담에 ‘열매를 따다 벌에 쏘여도 나무에서 내려오면 다 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몸을 봐요. 여기저기 벌에 쏘였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 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열매를 하나 따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따어요. 난민 인정을 받았고, 가족들을 만났고, 일자리도 얻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그러니 벌에 쏘인 상처는 이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출처 : 내 이름은 욀비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우리 지역의 디아스포라, '쭈머'의 목소리

“쭈머(Jumma)는 방글라데시 남동쪽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 지대에 거주해온 소수민족입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영토에 속하는 치타공 산악지대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인도 영토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뉘고 후에는 파키스탄의 영토에 속했습니다. 쭈머 사람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거치며 탄압의 가해자만 바뀌었을 뿐 정치적, 문화적 억압과 탄압을 끊임없이 받아 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벵갈리인과 언어와 종교를 비롯한 문화가 크게 다른 쭈머 인들은 ‘소수’이며 ‘다르다’는 이유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끊임없는 배척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쭈머인들이 조상 대대로 거주하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그 자리에 벵갈리인들을 위한 정착촌을 건설함으로써 사실상 소수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한 쭈머인 연대(JPNK)는 한국에 거주하는 쭈머 민족 출신들이 2002년에 결성한 인권 및 사회문화단체로,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T) 선주민인 쭈머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써줄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현재 김포지역에는 양촌읍을 중심으로 현재 1백여 명의 쭈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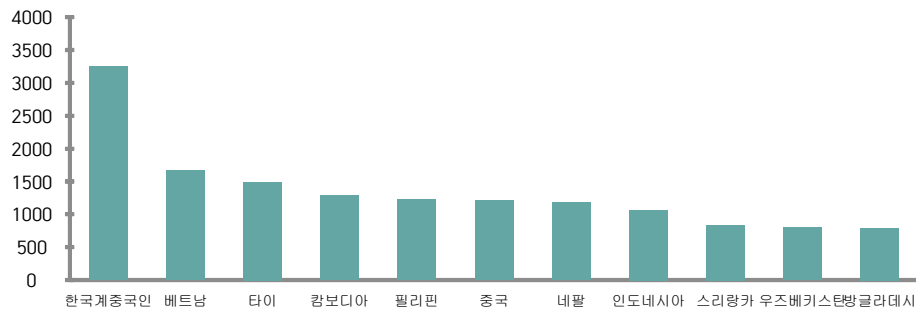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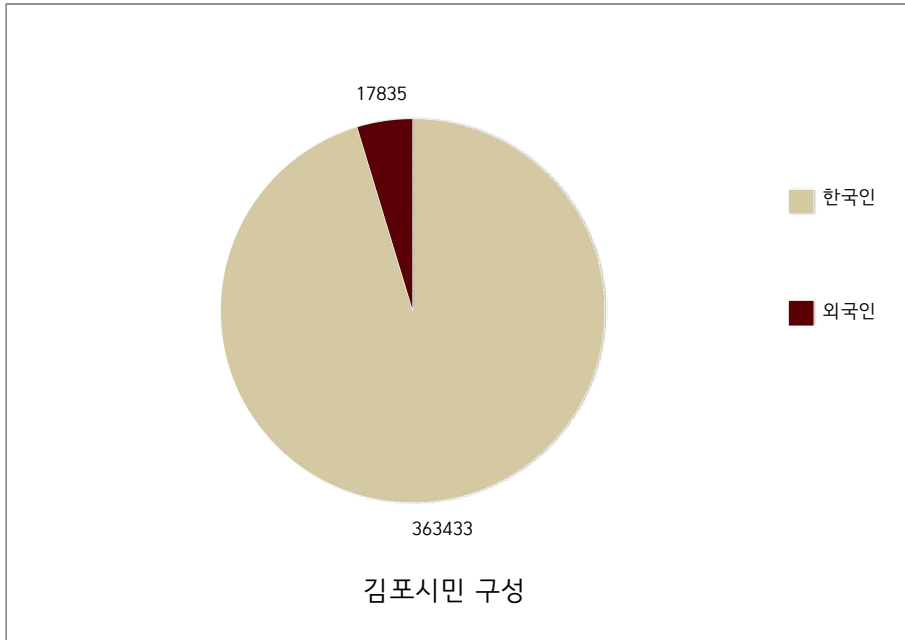
난민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해요. 그러나 1951 유엔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세계 난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파괴된다면 사람들은 앞으로 박해 받는 곳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도, 보호할 의지도 없는 나라에서 자신에게 닥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14일 유네스코 보고서)

내가 사는 김포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을까요?

김포시민 381,278명 중 17,835명이 외국인

(~'16.12월말 기준) 김포시 자료



🌸 4차시. 당연한 것, 낯설게 하기.

-질문거리 '동화 뒤집어 읽기'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구두는 왜 '유리'였을까요?

유리 구두를 신어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우연히 사자 가족을 발견하여, 가족을 뒤집어쓰고 숲속을 돌아다녔다. 많은 동물들은 진짜 사자가 나타난 줄 착각하고 줄행랑을 쳤다. 평소 싫어하던 여우도 끌리고 싶었다. 과욕을 부린 탓일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려다 돌연 자신의 정체가 들통 났다. 여우는 말했다. "만일, 네가 소리만 지르지 않았다면, 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랄 뻔 했네."

<사자 가족을 쓴 당나귀>에서 사자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자 가족을 뒤집어 쓴 당나귀가 왕 노릇 하는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족을 뒤집어 쓴 채, 당나귀가 과연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왜 다른 동물들은 그 허위를 쉽게 눈치 채지 못했을까요?

_날개달기 “윈스턴 씨와 알라오”

윈스턴씨는 영국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사람
윈스턴씨는 의사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윈스턴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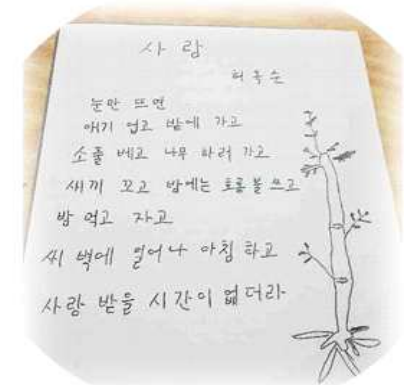
‘윈스턴 씨와 알라오’ 시에서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살짝 낯설게 해 보면 그 속에는 많은 편견과 차별이 숨어 있어요.
모둠 토론을 통해 시를 바꾸어 써 보세요.

_날개쫓기 1. 공생/상생을 위한 도구 찾기



이반 일리치가 말하는
'공생'을 위한 도구
자전거, 도서관, 그리고 시.



현대인은 3가지 소외를 겪는다고 한다. 몸으로부터의 소외, 장소로부터의 소외, 시로부터의 소외가 그것이다. 신체를 활용한다는 것,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은유와 언어에 예민한 감각을 갖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 감각들은 모두 '공생'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을 익힌다는 것은 이를 회복해가는 여정일 터. 자전거, 도서관, 시, 이 3가지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자전거는 지구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뒷받침해주는 소중한 교통수단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멈춰서 이웃과 인사도 나눌 수도 있고, 언제든지 아름다운 자연에 탄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도서관 자료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키워준다. 재미있게 읽은 책을 친구에게 알려주고 같이 읽고 즐거워하는 공공장소로서의 도서관, 공생을 경험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시는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언어다. 심금을 울리는 문장, 그 글귀들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넉넉한 품을 갖도록 도와준다.

_날개짓기 2. “광고 Re-Design”

이 사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광고 사진을 새롭게 디자인 해 보세요.
‘Re-Design’하기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왜 그렇게 바꾸었나요?

낯설게 하기

친숙하거나 익숙한 사물, 또는 관념을 새롭게 하고 낯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낯설게 하기’를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을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재인식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_날개짓 “다양한 재료로 Slide 만들기”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양한 재료들로 ‘오늘의 느낌’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지만 서로 다른 느낌을 나눠 보세요.

_더불어 날개짓

너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 그냥 지나쳐서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고 했다."
"학교에서 잡혀왔다."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잡혀왔다.

- 심미자 피해자 증언 -

일본은 1932년 '제 2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며 중국에 최초의 군 위안소를 설치. 조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러시아에서 강제로 끌려간 피해 여성의 규모는 8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일본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문서를 대부분 파기했고 여전히 범죄 사실을 부인. 2017년 4월 26일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가 2280회를 맞는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취재는 없었다. 나는 내가 일본인이자 남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다. 몇 번이나 그만뒀다고 생각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90여 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취재한 데는 큰 이유가 있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취재를 계속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중대한 국가 범죄를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일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된 남한 여성 아홉 명과 북한 여성 열한 명의 증언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다큐 「기억하겠습니다」의 저자 이토 다카시가 -

기억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			
노창자 盧昌子 1925-2004 남한	이귀분 李貴粉 1925-2004 남한	김영실 金英實 1921-2003 북한	리상옥 李相玉 1926-2001 북한
심미자 沈美子 1921-2008 남한	김대일 金大日 1921-2003 북한	장순애 張順愛 1927-2003 남한	황금주 黃錦周 1922-2018 남한
곽금녀 郭金女 1921-2007 북한	문옥주 文玉珠 1921-1996 남한	리계옥 李桂玉 1921-2003 북한	장덕경 姜德京 1929-1997 남한
리복녀 李福汝 1919-1983 북한	김학순 金學順 1921-1997 남한	심달연 沈達連 1927-2010 남한	김경생 金京生 1917-2004 북한
유선옥 柳善玉 1923-2001 북한	장옥순 鄭玉順 1920-1998 북한	김영숙 金英淑 1927-2010 북한	박영심 朴英深 1921-2006 북한

이토 다카시 글·사진, 전혜동·이은 옮김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시민들이 14일 낮 12시께 도쿄(東京)의 외무성 청사를 둘러싸는 '인간사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베를린 홀로코스트 광장

(Holocaust Memorial, 2005)



독일 땅 한복판, 크기가 각기 다른 직육면체의 구조물이 가득하다.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기리는 구조물 2,711개. 무릎 높이부터 4.7m의 높이까지 높이가 다양한 조형물이 2,711개가 있다. 이 구조물에는 이름이나 날짜 등 어떠한 것도 적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미로 같은 구조물 사이를 거닐면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한다. 가해 경험을 공공의 기억으로 만든다는 것, 그 무게를 가늠해보자.

🌸 5차시. 너와 나, 우리의 이어짐

_날개달기 1. “킵 물채우기”

행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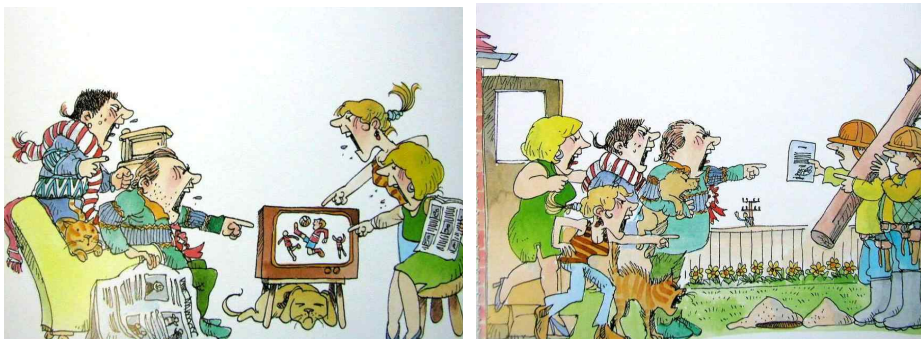
_날개달기 2. “협력의 스틱”

손가락 하나로 여러분 앞에 있는 나무를 각자 세워 보세요. 쉬운가요? 누군가 외부에서 신호를 주었을 때 내 것은 세워 두고 옆 친구의 나무를 세워 보세요.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이 신호를 만들어 세워 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달랐나요?

_날개달기 3. “갈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갈등이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요? 다음 두 장의 그림에서 보이는 갈등은 무엇일까요?



_날개쫓기 “공존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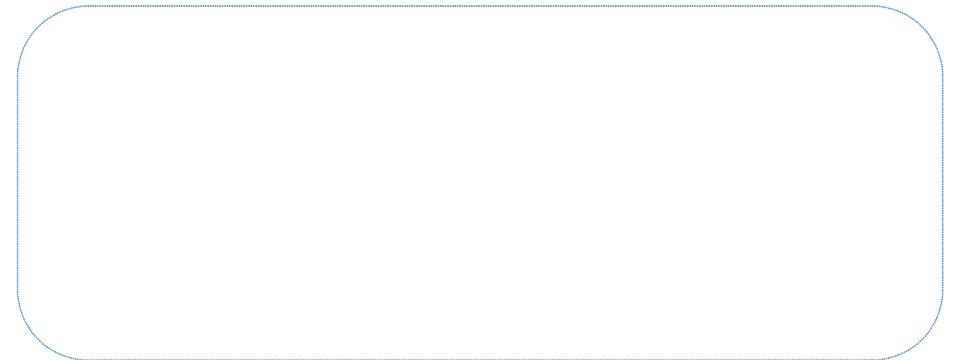
가족 선택 리스트

채식주의자 30대 여성 / 무속신앙을 믿는 할머니 / 등에 문신이 있는 20대 남성 /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19살 여성 / 한 쪽 팔이 없는 모델 / 서울역 지하도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 하이힐을 신고 화장한 남자 / 히잡을 쓴 30대 무슬림 여성 / 결벽증이 있는 40대 여성 / 치매 걸린 70대 할아버지 / 전과 있는 요리사 / 남성 전업주부 / 영어학원 강사를 하는 흑인 남성 / 학교에 가지 않고 주유소에서 알바 하는 청소년 / 손과 발을 이용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 1급 장애를 가진 36살의 여교사 / 외국인 불법 체류노동자 / 아프리카 콩고에서 정치적 망명을 해 온 가족 / 향교와 서원에서 예절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 북한말을 쓰는 고1 남학생 등

같이 살고 싶은 가족 3명과 그렇지 않은 가족 3명을 각각 적어주세요.

_날개짓 “이어짐”

여러분들이 만든 연대의 실타래로부터 작은 떨림과 파장을 느껴 보세요.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_읽을거리 《으뜸 헤엄이》



푸른 바다에서 벌어진 일화입니다.

빨간 물고기 무리 중 유독 새까만 빛깔의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보다 헤엄을 잘 쳐서 '으뜸 헤엄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날, 날쌔 다랑어 한 마리가 빨간 물고기 떼를 삼켰습니다.

속도가 빠른 으뜸 헤엄이만 살아남았죠.

혼자 생존한 으뜸 헤엄이는 외롭고 무섭고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한 세상을 구경하느라 어느새 다시 행복해집니다.

해파리도 보고, 가재도 만나 보고요. 물풀 숲도 발견하는데요.

잘 보니, 또 다른 빨간 물고기 떼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으뜸 헤엄이는 그들과 함께 경이로운 바닷속 여행을 하고 싶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큰 물고기가 뒹치지 못하도록,

함께 모여서,

더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공존했던 것이죠.

색이 까만 으뜸 헤엄이는 "나는 눈이 될게"라면서 말이죠.

다랑어 같은 큰 물고기는 자신보다 더 커보이는 물고기를 보고 줄행랑을 칩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레오 리오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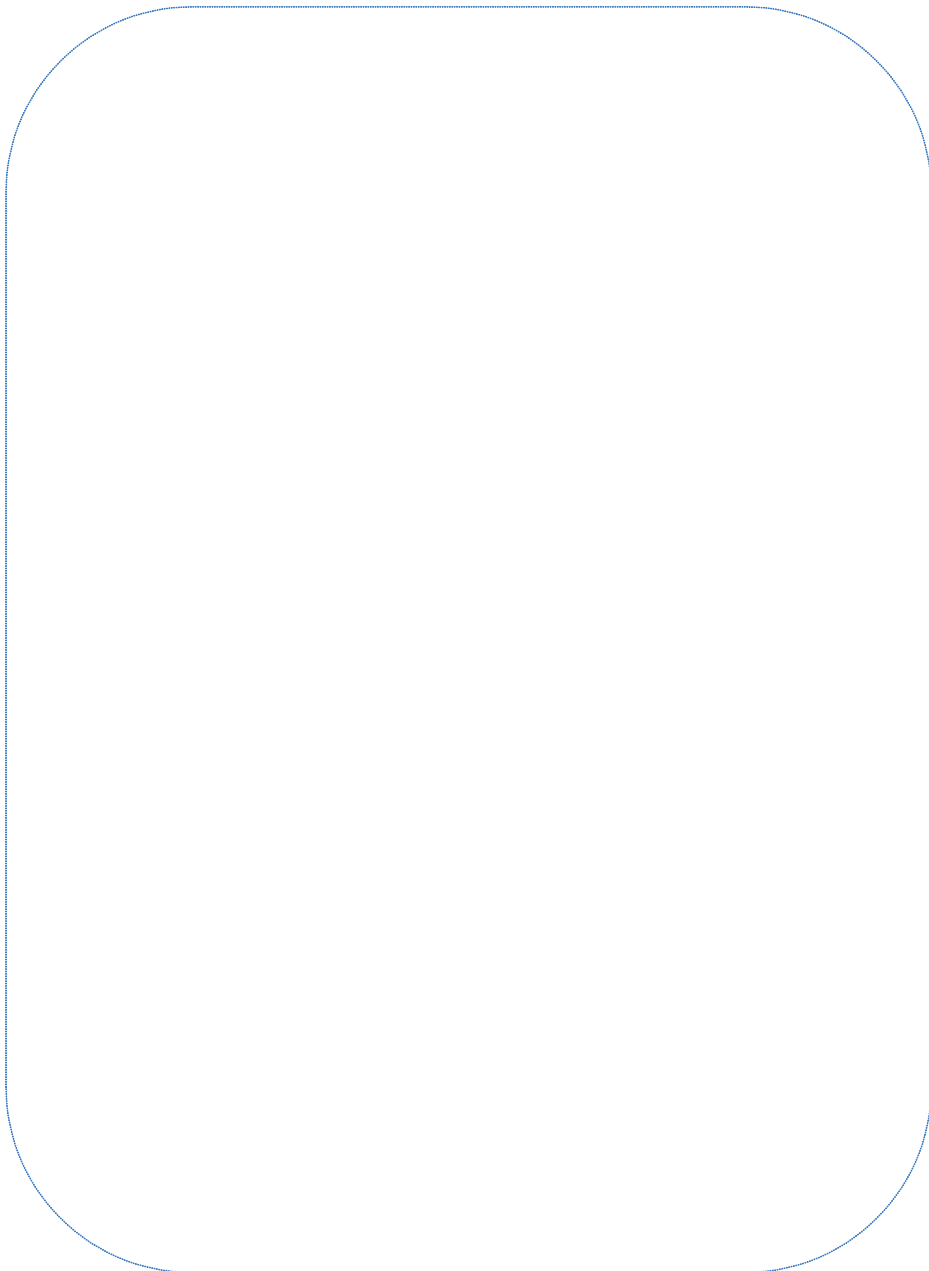
_더불어 날개짓 "파란 스웨터의 여행"

"내 생각에 이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장애를 제거해주고, 이를 통해 그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자 아님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_더불어 날개짓 "나의 실천 한 가지 약속"

_ 그동안 문화다양성 수업을 통해 느낀 것, 배운 것을 나누어 주세요.



주최/주관 김포문화재단, 문화다양성교육연구회 '다가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편집 권미영, 김민호
검수 김주미
발행일 2017. 4

“본 문화다양성 교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7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10110]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TEL : 031-996-7212 FAX : 031-996-1587
HOMEPAGE <https://www.gcf.or.kr>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gcf.or.kr>

문화다양성교육연구회 다가감 [10110]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1, 601호
TEL : 010-4661-1367 FAX : 050-4424-1367
<http://cafe.naver.com/thefeelingflower>